

독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다, '독도 모해'

접수번호	
학교명	삼산고등학교
동아리(팀)명	독도모해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우리 '독도모해'는 올바른 독도 인식을 바탕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독도를 접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나서서 활동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모해'는 순우리말로 '모퉁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모해'가 우리나라의 동쪽 가장 끝에 위치하기에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인 독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처럼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름을 '독도모해'라고 지었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박도연	2	보고서 작성, 100일간의 활동을 계획, 상동역에서 설문조사 및 스티커 나눠주기, 독도 스티커 도안 디자인하기, 교육봉사 계획 수립 및 준비물 준비, 교내 독도 발표대회 ppt 제작 및 발표 등
2	박지영	2	보고서 작성, 100일간의 활동을 계획, 상동역에서 설문조사 및 스티커 나눠주기, 교내 학생 대상 설문조사 폼 만들어서 제공하기, 교육봉사 계획 수립 및 준비물 준비, 교육봉사 결과물 영상 제작 등
3	이수진	2	보고서 작성, 100일간의 활동을 계획, 상동역에서 설문조사 및 스티커 나눠주기, 교육봉사 계획 수립 및 준비물 준비, 독도 관련 시각 자료 제작 등
4	정지현	2	보고서 작성, 100일간의 활동을 계획, 상동역에서 설문조사 및 스티커 나눠주기, 교육봉사 계획 수립 및 준비물 준비, 독도 관련 시각 자료 제작 등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첫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심해지는 만큼,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독도 사랑을 실천하자.

둘째, 사람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본과의 분쟁 중인 독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셋째,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모른 채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이번 대회를 기회로 우리 스스로도 독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리자.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와 관련된 교외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배워 온 '독도'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할 만큼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장보다 일본의 주장을 더 신뢰하고 있고, 이미 독도보다도 '다케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이번 대회를 기회 삼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독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오키섬을 일본지오파크네트워크(JPN)에 가입시킬 때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오키섬은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이를 2017년에 재인증 받았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 당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은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모른 채 우리나라 땅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독도를 생각하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정확하고 올바른 독도 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미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활동이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 기간 및 장소 :**

가. 활동 기간: 2018. 05. 8. ~ 08. 01.

나. 활동 장소

- 1) 삼산고등학교 교내
- 2) 상동역 일대
- 3) 나래 어린이집(인천 부평구 배곶로 38)

○ **활동 일정 및 추진 방법 :**

가. 활동 일정

내용 \ 시기	5. 8 ~ 5. 10	5. 11 ~ 5. 26	5. 27 ~ 6. 10	6. 11. ~ 8. 1	비고
계획 수립	○				
실내 활동		○	○	○	
외부 활동		○	○	○	
사진 촬영		○	○		
보고서 작성			○	○	
어린이집 교육봉사				○	팀을 나누어 활동함

나. 활동 방법

조사형태	방법	준비물	비고
실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독도 관련 신문 스크랩• 『독도를 부탁해』 읽기	필기도구 필기노트 하드보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인식 설문조사 • 독도 노래 제작 • UCC 제작 • 스티커 제작 • 활동 결과 시각자료 제작 	『독도를 부탁해』	
외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산고등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 상동역 스티커 나눠주기 및 설문조사 • 삼산고등학교 학생 대상 스티커의 효과 및 개선점 설문조사 • 어린이집 교육 봉사 	스티커(직접 제작) 설문지 필기도구 필기노트 사진기 ppt 자료	

○ 활동 내용

가. 우리가 먼저 독도에 대해 알자, 『독도를 부탁해』 읽기

독도 관련 도서	
<p>독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우리가 먼저 독도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독도와 관련된 책을 읽기로 하였다.</p> <p>독도에 관한 많은 책 중 이해하기 쉽고, 독도에 대해 다방면으로 서술한 『독도를 부탁해』를 읽기로 하였고, 읽은 후 중요한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느낀 점을 '독서종합시스템'에 기록하였다.</p> <p>각자가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달랐지만, 모두가 읽기 전보다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일본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주장을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등 역사적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근거 하에 알아볼 수 있어, 현재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p>	 <p><사진 1> 『독도를 부탁해』 전국사회교육과학연구원 지음</p>

나. 독도와 관련된 최근 이슈는 무엇일까? 독도 관련 신문 스크랩

독도 신문 스크랩

현재 독도와 관련된 소식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해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주에 걸쳐 매주 독도의 소식이나 국제적 상황을 알아보았다. 6월 2일에 그동안 해온 기사를 종합해 그중 괜찮은 기사를 골라보기도 하고, 기사를 교환해 읽어보면서 독도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았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과 국제적 가치 발굴에 착수했다. ~중략~ 실질적 이유는 독도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오키섬을 빌미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 해양수산부는 갯녹음¹⁾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독도해역의 해조류 서식지를 회복하기 위해 성게, 석회조류 등의 갯녹음 원인생물을 제거, 해조류 이식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 ▶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은 약 180억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중략~ 문제는 우리나라의 항공경로를 설명하는 전시물의 지도 속에서 동해가 아닌 ‘Sea of Japan(East Sea)’으로 일본해가 우선 표기돼 있다는 점이다. 또 독도의 경우 지도 상에 지명이 표기조차 돼 있지 않지만 이를 전시관 측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문 스크랩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독도의 소식과 우리 주변의 독도와 관련된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또, 책을 통해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기사를 보니, 일본에게 너무나 화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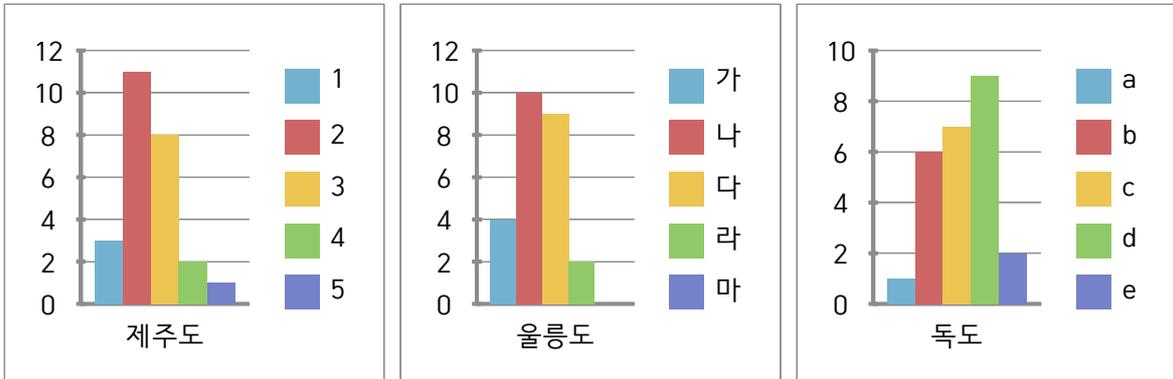
앞으로도 끊임없이 독도에 관심을 갖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이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또, 그동안 외교상의 문제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그냥 넘겼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 친구들은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 설문조사 시행

독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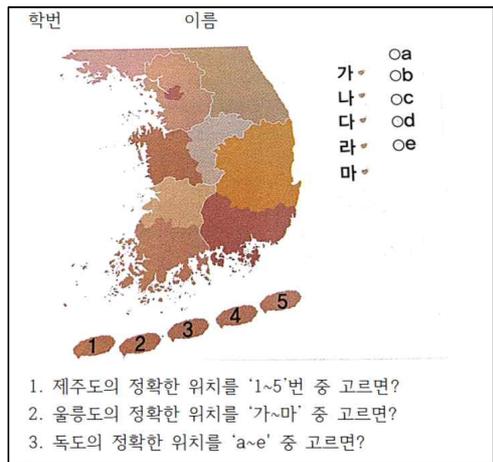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여 우리 활동의 이정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독도를 부탁해』에 있던 '제주도-울릉도-독도'의 위치 설문조사가 떠올랐다.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많이 틀렸었고, 기존의 설문조사와 다르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에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반도 지도는 책을 스캔하였고, 사진 밑에 질문을 넣어 반 친구들을 중심으로 삼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설문지의 답은 순서대로 '2, 나, c'이다. 설문지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위치는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반면, 울릉도, 독도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도는 잘못된 곳을 고른 사람이 실제 위치한 곳을 고른 사람보다 많다.

우리도 책을 읽기 전까지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었고, 설마 우리가 제주도-울릉도-독도의 위치도 모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친구들에게도 설문지를 나누어



<사진 2> 제주도-울릉도-독도에 대한 위치 설문지

준 결과,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는 독도의 역사적 사실과 중요성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라. 더 자세한 자료는 없을까? 독도 체험관 가기

독도 체험관

책과 스크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고, 실제 자료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독도 체험관'에 갔다.

독도체험관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사진 3> 독도 체험관 앞 기념사진

정보와 인식을 전 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한 신개념 박물관이다. 이곳은 크게 '역사관', '자연관' 그리고 '4D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4> 독도 체험관에서의 체험

'자연관' 속 '독도 대형 모형'을 통해 독도의 '지리·해양·생태계 등'을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나무 계단 속에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넣어 놓아 신기하면서도 알차게 구경할 수 있었다. '역사관'에는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동국여지승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국제사회와 독도', '거문도 사람들과 독도' 등 다양한 테마와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인터넷, 문헌 조사로만 보던 자료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았다. 또, 사진을 찍으면 '독도 신문'으로 나오는 기계 등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재미있게 독도의 다양한 면모를 체험할 수 있었고 독도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마.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독도 스티커 제작

독도 스티커

1) 도안 제작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자주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도 떠올릴 것이며,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독도 스티커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스티커는 사각형 보다는 원형이 더 좋을 것 같아 원형으로 만든다는 가정하에 도안을 생각했다.



우리는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독도 스티커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노력했다. 독도 섬 모양이 들어가면, 받는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도를 상징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스티커를 만들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를 고민

하던 중, 모두가 만족하는 디자인이 나오게 됐고, 결정된 도안을 컴퓨터로 옮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100장을 주문하였다. 결정된 스티커 도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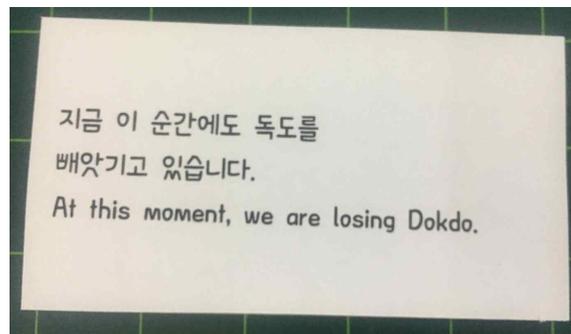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 그리하여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 해 독도(Dokdo)의 'D' 를 비스듬히, 올라가는 모양으로 디자인하였다. 또, 전체적인 D의 모양을 나타내는 테두리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중 이어진 부분(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은 끊어진 부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의 태극 무늬와 함께 조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스티커 나누어주기 및 설문조사

스티커를 그냥 나누어주면, 스티커의 의미와 우리의 목적을 모를 것 같아 우리를 소개하는 글과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짧은 문구를 넣어 나누어주었다.



<사진 6> 독도모해 소개글과 스티커의 목적



<사진 7> 뒷면에 넣은 짧은 문구

삼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누어주었고, 나누어준 후 사용 효과와 스티커의 개선점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동역에

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나누어주면서 위에서 실시한 위치 설문조사를 변형하여 '독도'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 8> 스티커를 사용한 모습_윤유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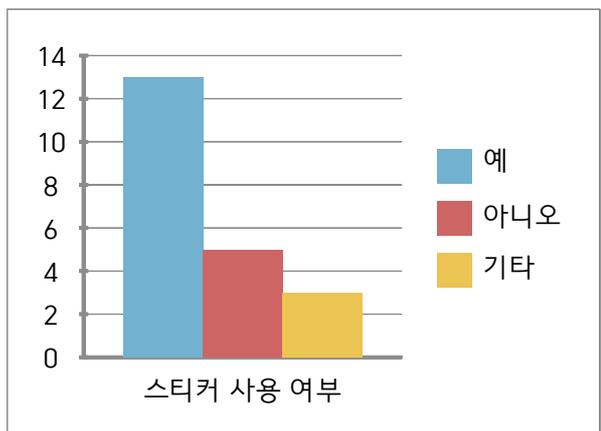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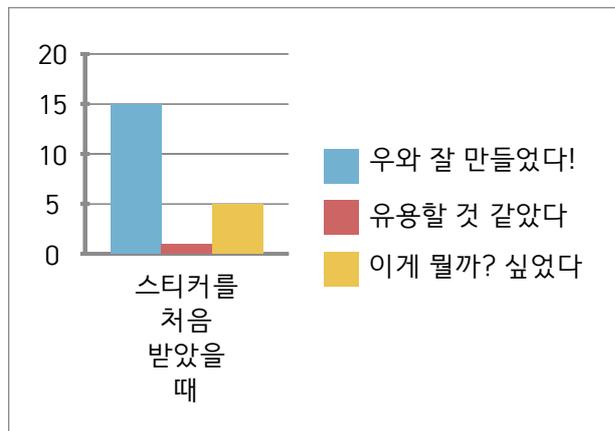
<사진 9> 스티커를 사용한 모습_허연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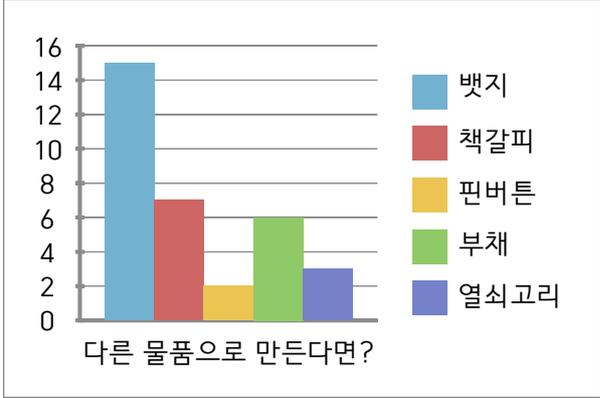


<사진 10> 스티커를 사용한 모습_최윤아, 한지선 제공

위 사진들은 실제 스티커를 사용한 친구들이 사용한 모습을 찍어 준 사진이다. 이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사용한 모습을 찍어 주기도 하였고, 학교 책상이나 교과서에 붙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었던 목적에 맞게 친구들이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스티커를 사용해주어 너무 뿌듯했고, 우리의 스티커가 장기적으로 친구들에게 독도를 상기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티커를 제공받은 친구들에게는 '스티커를 처음 받았을 때의 생각', '스티커 사용 여부', '다른 물품으로 제작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의 총 4가지 질문을 물어보았다. 원래는 사용 효과를 물어보려 했지만, 나누어준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 다음과 같은 4개의 질문으로 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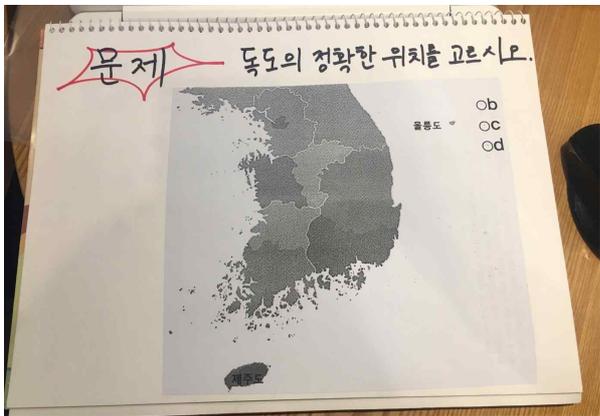


4.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을 써주세요. ex) 더 열심히 활동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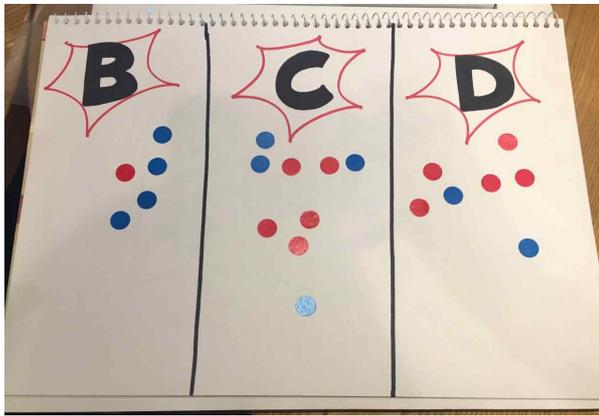
화이팅♥♥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독도 꼭 기킬 배려음! 사랑해요!
짱
다음에 또 독도 물품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노력해보아요**
힘내!!짱♥
짧은 시간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한다. 힘내고. 다소 이게 뭐야.?스러운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나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참 멋지고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독도모해 화이도!!! 자랑스럽습승 스티커 넘넘 이백유@@ 적상에 딱하니 붙여놔유유

<사진 11>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한 후,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눠주기 전에는 친구들이 안 쓰고 버릴까봐 걱정했었는데 직접 나눠주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앞으로도 독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에 슬 수범하며 친구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진 12> 상동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사진 13> 상동역 설문조사 결과

상동역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나누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삼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b, c, d' 중 독도의 위치를 묻는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는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맞춘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반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리적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상동역에서 스티커를 나누어주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을 걸면 거절하는 사람, 심지어는 무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상처도 받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처음에 나눠주기로 했던 30~40장을 거의 다 나누어 주었고, 감사하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많아서 힘들지만 뿌듯한 활동이었다.



<사진 14> 상동역에서 활동하는 모습



<사진 15> 상동역에서 활동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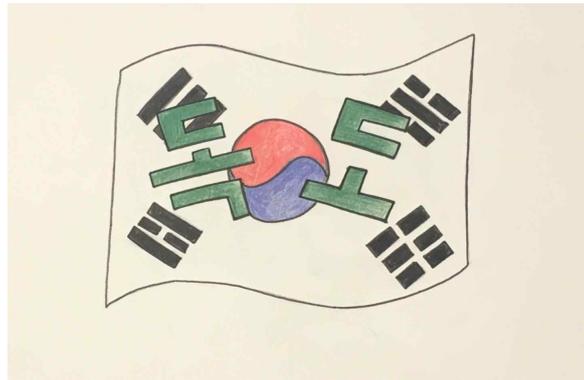
바. 독도 의식을 함양하자, 독도 UCC 제작하기

독도 UCC

UCC를 제작하여 개인 SNS에 올리면, 친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노래이면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UCC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노래는 '크레용팝-빠빠빠'로 결정했고, 기존 가사 대신 독도와 관련되게 개사를 하여 불러 배경음으로 깔고, 가사와 우리의 취지에 맞게 UCC를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UCC를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만들었다.



<사진 22> UCC의 한 장면



<사진 23> UCC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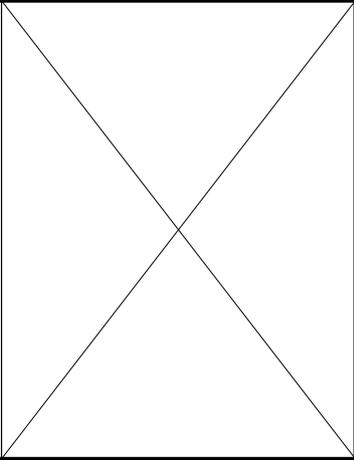
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도를, 독도교육봉사

독도교육봉사

우리의 목표였던 '독도 교육 봉사'를 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찾아보았지만, 우리의 활동을 원하는 기관이 없었다. 계획서를 보기도 전에 '이런 걸 하면 누가 듣냐'는 말을 들어 낙심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차에 나래 어린이집에서 흔쾌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모든 차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의하여 약 1시간 정도 하였고, 교육 20분, 활동 4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처음 계획했던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하였고, 최대한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다.

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일시	7월 23일 월요일	7월 24일 화요일	7월 25일 수요일
학습주제	단군신화를 알아보자.	독도의 자연환경을 알아보자.	독도의 형성과정을 알아보자.
학습활동	나만의 단군신화 그리기	독도모형 만들기	화산폭발(용암분출)실험
교육목적 및 교육효과	우리나라의 근본 신화인 '단군신화'를 알아보고, 독창적으로 변형하여 나만의 단군신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독도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독도의 외관을 꾸밀 수 있다.	독도의 형성과정을 알고 독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화산폭발(용암분출)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활동사진			

<p>활동자료 (ppt 제작)</p>			
------------------------------	---	--	---

나래 어린이집 원장님께 독도 및 역사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려, 1차시에는 단군신화를 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본 신화이기도 하고,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수준과 앞으로 할 독도 관련 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집중을 많이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직 한글을 다 떼지 못해서 우리가 글자 위주로 제작한 ppt를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2차시부터는 글자보다는 사진 위주로 ppt를 제작하였고,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을 늘렸다. 같은 표현이라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다.

3차시는 2차시 때 설명하였던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확실히 우리가 알려주기만 했을 때보다 반응도 더 좋았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이 너무 우리 위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일시	7월 30일 월요일	7월 31일 화요일	8월 1일 수요일
학습주제	태극기의 역사를 알아보자.	독도에 사는 생물들을 알아보자.	독도의 생김새를 알아보자.
학습활동	태극기 그리기	독도 부채 만들기	독도 모자이크 하기
학습목적 및 학습효과	태극기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 태극기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올바른	독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알 수 있다. 독도에 있는 생물이 그려진 부채를 만들면서	밑그림이 그려진 독도의 형상에 색종이 모자이크를 하면서 독도의 생김새에 대해 알

	<p>태극기 문양을 알고 그릴 수 있다.</p>	<p>독도에 서식하는 여러 생물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p>	<p>수 있다. 색종이 모자이크를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p>
<p>활동사진</p>			
<p>활동자료</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활동 요약서	요약서	독도체험 발표대회 요약서
3	활동 결과물	영상	독도 교육봉사 활동 영상
4	독도 스티커 도안	도안	
5	<독도 UCC> QR코드	QR코드	<p>https://www.youtube.com/watch?v=NfJJRbNXOY8&feature=youtu.be</p>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1. 사전 조사(문헌 조사, 인터넷 조사, 독도 체험관 방문)을 통해 일본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료(史料)와 근거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는 물론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조차 우리나라 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이 분쟁은 일본의 억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2. '제주도-울릉도-독도'위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 위치를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도의 위치를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삼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준 스티커의 반응과 사용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함으로써 친구들도 독도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눈에 띄는 곳에 붙인 스티커를 통해 독도를 자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나'라는 작은 개인의 변화, 혹은 우리 동아리처럼 '소수'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느꼈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우리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 스티커를 받아간 모든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스티커를 통해 독도를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고,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UCC 제작을 위해 노래를 개사하는 활동은 우리가 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많은 정보 중 핵심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까를 고민하게 해주어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다. 또, 노래에 맞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화면을 구성한 것도 우리 팀의 활동 목적(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독도를 떠올리고 접하게 하는 일)

을 상기시켜주는 활동이어서, 동기부여도 되었다.

6.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자료조사와 수업준비를 하고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항상 우리는 독도에 대해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가르쳐보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독도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대상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향후 계획

100일간의 독도체험 발표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동안 우리가 독도에 대해 배우고 깨달은 사실들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중심으로 다룬 독도의 역사적 사실,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독도가 갖는 다른 가치들도 깊게 탐구해볼 것이다. 또, 탐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UCC와 같은 비교적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다. 그 외에도 독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독도모해'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 뜻깊은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박도연	<p>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를 물어봤다면 예전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나를 반성하면서,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자는 마음에서, 이 대회에 참여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대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였고, 독도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게 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보람찬 마음이 커져 어려움과 힘든 마음은 금세 사라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p>
박지영	<p>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것 외의 정보와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하면서 현재 독도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독도와 관련된 스티커를 만들고 나눠주면서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도 그동안 '독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영유권 분쟁만 떠올리고 위치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p> <p>이번 대회를 통해 하였던 유치원 교육봉사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 활동을 통해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독도'를 남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정확한 정보와 그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 그동안 조사해왔던 자료들을 다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독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갖게 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p>
이수진	<p>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독도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계획한 내용들이 잘 수행된 것 같아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한 교육 봉사이다. 독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독</p>

	<p>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에 했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부터 마지막 독도 교육 봉사까지 쉽지 않았지만 내가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도 독도에 대한 애정과 많은 지식들이 쌓이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는 즐기면서 했던 것 같다. 이번 활동들을 통해 갖게 된 독도에 대한 높은 애정을 100일간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발판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많은 독도를 위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싶다.</p>
정지현	<p>친구들과 도안을 직접 만들어 스티커 제작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며 나누어 주는 활동도 하고, 독도에 관련된 여러 신문 기사를 찾아본 후 시각자료를 만드는 등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또, 아이들에게 독도를 알려주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면서, 수업 대상이 어리다 보니 깊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고,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수업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아서 힘들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나 또한 독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 또한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p>

5. 건의사항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독도 관련 연수가 학교 단위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시행됐으면 합니다.